

社 說

2023년 주총 결산: 재미는 '봉'이다

경제포커스

김 홍 수

논설위원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장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 상장 기업이 상품, 서비스를 팔면서 월급(직원), 이자(채권자), 세금(국가) 내고 남은 돈, 순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다. 주주는 기업이 망하면 투자금(주식)을 한 푼도 못 건지는 위험을 지는 대신 이윤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칙이 한국에선 통하지 않는다.

2023년 주주총회 시즌이 끝났다. 한국 대표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 실적과 배당 내역이 일제히 공개됐다. 대표 기업들의 배당 행태를 보면 상장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을 얼마나 봉으로 취급하는지 드러난다.

반도체 가격 폭락 탓에 이익이 4분의 1 토막 난 SK하이닉스 주주 배당을 전년 1주당 1540원에서 올해는 1200원으로 22%나 줄였다. 회사는 이익 급감을 이유로 투자 계획도 축소했다. 그런데 직원 3만명에겐 작년보다 16% 늘어난 1억3384만원의 평균 연봉을 지급했다. 이래 놓고는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 환사채를 2조2000억원어치나 발행한

다고 엇그제 발표했다. 지난해 급리 인상과 고유가 덕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황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유사와 은행은 어떨까. 4조6000억원의 이익을 내 은행 업계 1위를 차지한 신한금융지주. 1주당 이익이 7308원에서 8454원으로 1146원(15%) 늘었는데, 1주당 배당은 1960원에서 2065원으로 105원(5%) 올려주는 데 그쳤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고, 은행장은 성과보너스를 합쳐 15억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다. 1위 정유사

임직원 연봉 대폭 올리면서 소액주주 배당엔 인색 상장기업 이익은 주주 몫 시장의 응징 닥쳐올 것

SK이노베이션. 순이익이 1조4000억원 더 늘어났는데 배당은 3000억원 더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으로 63%나 올려줬다. 제조업 대표 주자 현대차. 순이익이 7조원대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주당 이익도 1만원이나 늘었는데, 주당 배당금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올려주는 데 그쳤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어서었다. 전자 업종 대표 기업 LG전자. 순이익은 1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대로

늘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15.5%나 올라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었다. 반면 배당 총액은 1539억원에서 126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쥐꼬리 배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주요인 중 하나다. 최근 10년간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율을 보면 미국 89%, 미국 제외 선진국 68%, 브라질·인도·멕시코 등 신흥국 평균 38%, 중국 31%인 데 비해 한국은 28%에 불과하다.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낮다. 상장 기업 보유 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4배(2022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필리핀보다 낮다.

작년은 투자자에게 악몽 같은 해였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25%, 35% 폭락했다. 미국 기업 같으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적극적 주주 환원 조치로 주가 방어에 나섰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1300만 소액 주주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 SK, 카카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개시장'을 벌일 아닌 것처럼 해치우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소액 주주 휴대 기업에 대한 시장의 응징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과학과 사실을 거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의 원 5명이 '허무맹랑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6일 일본 후쿠시마를 향의 방문한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을 확인하고 도쿄전력 방문, 일본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오염 처리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4월 "(오염 처리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쿄전력은 대응단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일본 의원들도 이들을 만나기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의 방문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정식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에서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곳이다. 이 두 기관이 연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 후 우리 근해에 본격적으로 온다. 당연히 희석돼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는 약 10만분의 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세슘,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원전들의 지난해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예상 방류량의 10배라는 발표도 나온 바 있다.

후쿠시마는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 접해 있기에 이곳을 떠난 해류는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주, 하와이를 거치는 방식으로 순환해 한국에 오게 된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떠내려간 가

옥 등의 잔해들이 미 서부와 하와이 등에서 먼저 발견된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잔해들 중 한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문제가 많다면 해류 이동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연구소들은 후쿠시마 폭발 이후 서부 해안의 바닷물을 채취,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인체에 해를 미치지 수준이 아니었다. 태평양의 면적은 1억6525만km². 동서 길이는 약 1만6000km다.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후쿠시마 사태 당시 아무런 처리도 하지 못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퍼져 나갔지만, 방대한 태평양에 완전히 희석돼 방사능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민주당이 마치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수입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밝혔는데 누가 어떻게 수입하나.

광우병, FTA, 사드 전자과,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수돗물 민영화 등 민주당은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도 이 괴담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정치적으로 괴담에 선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괴담은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수당이었던 이철수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괴담 정치를 벌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출범 한 달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 與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생119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대안이라며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집권당이 쌀 과잉 생산이라는 우리 농업의 고질에 대한 근본 정책 대신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캠페인을 하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실소를 하고 있다.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식생활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나. 이것이 새 여당 지도부의 1호 민생 특위 정책 대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남아도는 쌀을 전량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 농업 경쟁력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재정 부담만 키울 문제인데 정부가 반대했던 법안 대신심으로 농민 표를 얻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씌우기 위해 정

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응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실용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비웃음거리만 만들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쌀값 하락 때 정부가 적기에 대처해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설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당대회 때 "4·3은 김일성 지시"라고 했다가 당의 제지를 받은 태영호 최고위원도 최근 다시 이를 거론하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집권당 지도부는 피해자 측에서도 무시해선 안 된다. 김진태 강원지사과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내에서 산불이 났는데도 골프 연습을 하거나 술자리에 참석해 구설에 올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기현 대표는 목사 문제를 놓고 불협사운드 설전을 벌였다. 안 그래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약속을 어겼다' '말로만 청년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여당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이다.

이번엔 다리 붕괴, 아직도 후진국 체질 못 벗어난 선진 한국

경기 성남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보행로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그 위를 걷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993년 건설된 이 다리는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이 많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목숨을 잃은 게 29년 전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된다.

불과 석 달 전에도 서울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 신도림역과 도림동을 잇는 보도 육교가 옛가락처럼 휘어 주저앉았다. 만들어진 지 6년밖에 안 된 다리였다. 이 다리는 사고 한 달 전 이뤄진 정기 점검에서 안전 A등급을 받았다. 이번엔 무너진 정자교도 작년 11월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자교는 만든 지 30년 됐지만 다리는 보수·보강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50년 이상 별문제 없이 쓴다고 한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공사 기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고, 안전관리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했다. 공사 단계부터의 책임감리제도 도입됐다. 그런데도 평택 국제대교 상판 4개 연쇄 붕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엔 안전 불감증과 '살마' 의식, 정해진 공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적당주의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그러다 부끄러운 사고가 또 벌어졌다.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81]

셰이크셰크 햄버거

맨해튼 남단에 매디슨 스퀘어 공원(Madison Square Park)이 있다. 그리고 그 공원 안에 유명한 '셰이크셰크(Shake Shack)' 1호점이 있다. 이 햄버거 브랜드의 창업자 다니 마이어(Danny Meyer)는 세인트루이스 출신이다. 고등학교 시절, 방과 후면 미국 중서부 지역에 흔한 '스테이크 앤 셰이크(Steak 'n Shake)'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다. 후에 뉴욕으로 건너와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그는 자신이 먹던 햄버거를 생각하고 뉴욕에 그런 품질과 분위기의 햄버거 가게가 없는 것을 늘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레스토랑 근처에 관리가 되지 않고 노숙자들만 들끓던 공원을 살리기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04년 뉴욕에서 공원

안에 작은 햄버거 스탠드를 건축, 운영 하는 허가를 받는다. 이런 좋은 취지에 동조하여 인근에 있는 유명 디자인 회사 펜타그램(Pentagram)은 로고를 무료로 디자인해 주었다. 오늘날 전설이 된 셰이크셰크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된 셰이크셰크는 싸구려로 인식되던 햄버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리고 공원의 활기찬 옛 모습을 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공의 큰 부분은 공원의 환경과 건축 덕분이다. 설계를 담당할 '사이트(SITE)'는 미국 시골에서 흔히 보이는 햄버거 가게 같은 디자인으로 타 지역 출신이 많은 뉴욕인들의 향수를 불러왔다. 몇 해 전 한국에도 셰이크셰크가 상륙했다. 뉴욕을 다녀갔던 방문객들과 SNS를 통해서도 이미 소문이 나있었던 브랜드



여서 그 인기는 예상되던 바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를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지만, 다른 글로벌 체인들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의 정서와 문화, 매력을 상실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다소 아쉽다.

봄이 찾아왔다. 매디슨 스퀘어 공원에도 잔디밭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햄버거와 밀크셰이크를 먹는 뉴욕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겨울 동안 다니 마이어의 다른 레스토랑에서 손님의 코트를 받아 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이 셰이크셰크의 바빠진 일손을 도우러 투입되고 있다.

뉴욕 FIT 교수·마이애미대 명예석좌교수

尹대통령 향한 '중도 회군론'을 반박한다

'중도'가 아니라 '왔다갔다' '미결정' 유권자일뿐 | '좌클릭' 할 게 아니라 끌어 당겨야

중도 40%를 보는 두가지 태도

한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 유권자 40%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동감이다. 그러나 방법론에선 갈린다.

Table with 2 columns: 의견 A and 의견 B. Opinion A focuses on winning over the 40% through persuasion and engagement. Opinion B focuses on winning over the 40% through a 'left-click' strategy, which is criticized as a one-way approach.

필자는 의견 B 편이다. 의견 A도 경청은 한다. (뉴데일리) 4월 2일자도 어느 인사가 그런 의견을 썼다고 썼다.

'중도 회군론(좌클릭)'이 틀린 이유

필자의 가설(假設)은 이렇다

- 첫째, 중도라는 것 자체가 뭔지 확실치가 않다. 중용(中庸) 중도(中道)는 공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도'라는 40%가 과연 그런 중도인지는 글썽하다. 그보다는 ▲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 좌우에 관심 없다. 뭔지도 모른다. ▲ 좌의 세상에서 보수로 보이면 안 된다. 중도라 해야 한다. 등등 일 것이다. 이상이라면, 그런 범주를 한 덩어리 거장한 철학적 중도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그냥 △ 왔다 갔다(swing) 중 △미결정(undecided) 중 △부동층 △ 무관심층 △ 일부는 양다리 처세(處世)라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이들은 더 강한 세(勢)와 견인력(牽引力)을 만나면, 그리 끌리는 성향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한 흡인력도 발휘하지 못하면, 정치 사표를 내 마땅하다.

- 둘째, 북한 공산당·남쪽 주사파는 그들의 본색을 마음속에 감춰 둔다. 겉으로는 민족주의자·피해자 편·약자 편 코스프레를 한다. 속입수다. 자신의 정체성을 단 1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왜 '왔다 갔다'를 얻는 답시고, 자유 본색(本色) 자유 본진(本陣)을 흐물흐물 해체해야 하는가? 그동안 그랬더니 '산토끼'들이 왕창 오든가? '집토끼'만 떠났다. 셋째, 이 연장선에서 오늘의 한국 정치지형은 '보.남.파.초.노.주.빨' 아닌, '새.빨.강.빨.강.덜.빨.강.덜.빨.강.약한.빨.강.'으로 치우쳐 있다. 자유주의 칸은 갈수록 허얀 빈칸이 되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수혜층이던 일부도 이 세대에 영합해, '우리로 보수자유우파 관두겠다. 이제부터 중도다'라고 한다. 국민의힘도, 비(非) 좌파 매체들도 그런다.

40%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렇다면,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자유의 보루를 굳건히 지키면서 '중도'라는 40%의 마음을 살 것인가? 주사파 5년의 유사 전체주의·세금 피주기·50억 클럽을 척결하고, 자유의 정치경제로 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우경' 했다는 시비도 있다. 그의 '자유'의 세계관은 나치와 불세비키를 다 배척하는 '황금의 중도'다. 이를 적대하는 주사파가 너무 좌경, 극좌다.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4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